

2018년 11월 2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무역분쟁 타결 기대에 힘입어 상승 트럼프, 시진핑 “무역분쟁에 중점을 두고 대화 했다”

### 무역분쟁 타결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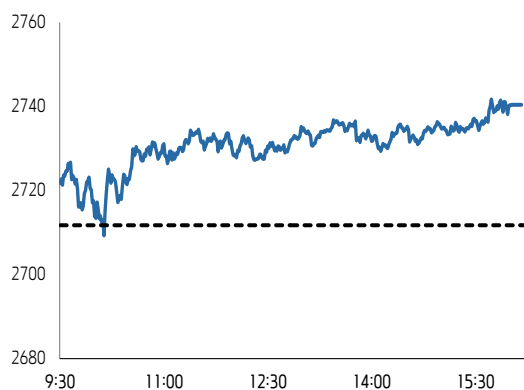
미 증시는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31 일 중국 정치국 회의에서 무역분쟁의 영향을 점검했다는 소식에 이어, 1 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를 통한 무역분쟁 관련 대화에 합의한 점이 우호적인 영향. 더불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64%나 급등 하는 등 반도체 업종도 강세를 보인 점도 긍정적인 영향(다우 +1.06%, 나스닥 +1.75%, S&P500 +1.06%, 러셀 2000 +2.22%)

미 증시는 무역분쟁 완화 및 반도체 업종 강세에 힘입어 상승. 먼저 미-중 무역분쟁 완화. 지난 31 일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정치국 회의에서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을 점검.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태도를 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피해를 약화 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도 논의 되었을 것이라는 소식도 나옴.

이런 가운데 1 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무역분쟁과 관련해 전화를 통해 대화를 나눴다는 소식이 나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분쟁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라고 주장. 시진핑 주석 또한 “미-중간 무역 갈등을 원치 않으며 미-중간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를 원한다” 라고 언급. 시장은 이러한 미중간 움직임이 무역갈등을 해소하고 11 월 29 일 있을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타결 기대감을 높였다고 평가.

한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00% 급등. 미국 검찰이 푸젠반도체가 대만의 UMC 와 마이크론의 기술을 훔치려고 했다고 기소 했다는 점, 미 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높아진 점, 쿠로브(+6.77%), NXP 세미컨덕터(+12.13%), 다이알로그(+5.84%) 등 애플 부품주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은 결과로 추정.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24.46	-0.26	홍콩항셱	25,416.00	+1.75
KOSDAQ	657.46	+1.36	영국	7,114.66	-0.19
DOW	25,380.74	+1.06	독일	11,468.54	+0.18
NASDAQ	7,434.06	+1.75	프랑스	5,085.78	-0.15
S&P 500	2,740.37	+1.06	스페인	8,954.80	+0.69
상하이종합	2,606.24	+0.13	그리스	619.32	-3.25
일본	21,687.65	-1.06	이탈리아	19,185.14	+0.7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반도체 업종 급등

보잉(+2.31%), 유나이티드테크(+2.71%), 록히드 마틴(+1.90%) 등 항공기 관련 업종과 캐터필라(+2.79%), 디어(+3.85%) 등 기계업종은 미-중 무역분쟁 완화에 힘입어 상승 했다. 마이크로론(+6.36%), 인텔(+2.86%), 텍사스인스트루먼트(+5.14%), 브로드컴(+2.86%) 등 반도체 업종은 무역분쟁 완화 및 애플 부품주 실적 개선에 힘입어 급등했다. 아마존(+4.23%)은 블랙프라이데이(11월 23일)를 앞두고 매출이 급증 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폭이 확대 되었다.

길리어드사이언스(+3.12%)는 12월 1~4일 열리는 미국 혈액 학회 연례회의에서 종양학 및 세포 치료 연구 프로그램 데이터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의 주목 받으며 상승 했다. 바이오젠(+3.63%), 셀진(+5.60%) 등도 동반 상승 했다. 듀폰(+8.07%)은 양호한 실적과 자사주 매입 결정이 알려지자 급등 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스타벅스(+0.62%) 시간 외로 9% 상승 중이며, 애플(+1.54%)은 5% 하락 중이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1.97%	대형 가치주 ETF	+0.74%
에너지섹터 ETF	+0.78%	중형 가치주 ETF	+1.58%
소매업체 ETF	+1.63%	소형 가치주 ETF	+1.49%
금융섹터 ETF	+0.46%	배당주 ETF	+0.43%
기술섹터 ETF	+1.17%	변동성 ETF	-2.83%
소셜 미디어업체 ETF	+3.20%	대형 성장주 ETF	+1.56%
인터넷업체 ETF	+1.63%	중형 성장주 ETF	+1.92%
리츠업체 ETF	+0.37%	소형 성장주 ETF	+2.72%
주택건설업체 ETF	+3.30%	신흥국 고배당 ETF	+2.60%
바이오섹터 ETF	+3.84%	신흥국 저변동성 ETF	+1.93%
헬스케어 ETF	+1.26%	하이일드 ETF	+0.37%
곡물 ETF	+1.21%	물가연동채 ETF	-0.13%
반도체 ETF	+4.83%	Long/short ETF	-1.0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01.52	+0.83%	+1.02%	-12.26%
소재	338.60	+3.01%	+5.77%	-7.03%
산업재	597.61	+1.72%	+1.86%	-10.45%
경기소비재	850.53	+2.23%	-0.11%	-5.94%
필수소비재	569.41	+0.48%	+0.94%	+3.37%
헬스케어	1,040.12	+1.31%	+1.70%	-4.86%
금융	437.83	+0.45%	+2.99%	-6.25%
IT	1,230.27	+1.20%	+1.00%	-6.02%
커뮤니케이션	151.09	+0.14%	+0.62%	-4.74%
유틸리티	270.94	-0.53%	-1.76%	+1.08%
부동산	199.27	+0.46%	-0.34%	+1.4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상승 예상

MSCI 한국 지수는 2.13% MSCI 신흥 지수는 3.58%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2,474 계약)에 힘입어 3.30pt 상승한 266.9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3.2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6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증시가 여타 국가에 비해 하락폭이 컸던 요인 중 하나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며, 미-중간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교역 감소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 이슈에 따라 변화가 큰 이유다. 그런 면에서 지난 31 일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중국의 정치국 회의, 그리고 1 일 있었던 트럼프와 시진핑의 전화 통화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특히 정치국회의에서 중국의 무역분쟁에 대한 태도 변화가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양국 정상의 무역분쟁 합의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은 외국인 매수 기대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반도체 업종이 업황 개선 및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64% 급등 하는 등 양호한 움직임을 보인 점도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 증시 마감 후 애플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로 4% 가까이 하락 중이다. 이는 아이폰 판매량이 예상치인 4,750 만대를 하회한 4,689 만대 팔린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하며 한국 증시에 부정적이다. 다만, 애플 부품주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 점은 한국 증시에서 관련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한국 수출의 선행 역할을 하는 미국의 제조업지수가 예상을 크게 하회하고, 국제유가 또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2.5% 하락한 점은 부담이다. 그러나 부담 요인 보다는 긍정 요인의 파급력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 한국 증시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제조업지표 둔화

10 월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는 전월(59.8) 보다 둔화된 57.7 로 발표되었다. 한편, 신규주문(61.8→57.4), 고용지수(58.8→56.8) 등은 둔화된 가운데 물가지수(66.9→71.6)은 상승 했다.

미국 9 월 건설지출은 전월 대비 0.0%에 그쳤다. 이는 지난달 발표치(mom +0.8%)를 하회한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1.6 만건) 보다 감소한 21.4 만건으로 발표되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파운드화 급등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대 이란 제재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하락 했다. 특히 한국과 인도에 대해서 이란산 원유 수입 규제가 면제 되었다. 다만, 아직은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면제 발표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 좀더 지켜 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는 경제지표 둔화 및 파운드화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 금융을 제외한 브렉시트에 대한 타협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부각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한편, 영국 영란은행은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금리를 동결했으나 여전히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유지 했다. 이러한 요인에 힘입어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2% 가까이 강세를 보였고, 유로화 또한 0.9% 내외 강세를 보였다. 신흥국 환율 또한 1~2% 내외 강세를 보였는데 이는 미-중 무역분쟁 관련 협상 기대감이 높아진 데 힘입은 것으로 추정한다.

국채금리는 미국 경제지표 둔화 여파로 하락 했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아진 점,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져 하락은 제한되었다. 2 년물 국채금리의 하락폭이 컸는데 경제지표 둔화 여파로 12 월 금리인상 확률(77.3%→74.3%)이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자 상승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14%, 철근도 0.85%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3.69	-2.48	-5.41	Dollar Index	96.298	-0.85	-0.39
브렌트유	72.89	-2.87	-5.19	EUR/USD	1.1408	+0.85	+0.29
금	1,238.60	+1.94	+0.50	USD/JPY	112.71	-0.20	+0.26
은	14,777	+3.47	+1.00	GBP/USD	1.3000	+1.83	+1.43
알루미늄	1,966.00	+0.64	-1.40	USD/CHF	1.0023	-0.61	+0.37
전기동	6,090.00	+1.64	-2.18	AUD/USD	0.7202	+1.82	+1.72
아연	2,540.00	+1.89	-3.68	USD/CAD	1.3095	-0.47	+0.16
옥수수	366.75	+0.96	+1.59	USD/BRL	3.699	-0.67	-0.17
밀	508.00	+1.50	+4.26	USD/CNH	6.914	-0.87	-0.61
대두	882.00	+3.55	+3.22	USD/KRW	1138.10	-0.13	+0.01
커피	117.80	+4.53	-2.77	USD/KRW NDF1M	1123.54	-1.51	-1.08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3.136	-0.75	+1.93	스페인	1.565	+2.00	-1.90
한국	2.252	+0.70	-2.00	포르투갈	1.879	+1.00	-5.70
일본	0.123	-0.40	+0.60	그리스	4.211	-0.20	-0.40
독일	0.399	+1.40	+0.10	이탈리아	3.378	-4.70	-11.20